

## 치과용 lidocaine 28 ampules로 국소마취 하에 1차 봉합한 악안면 심부 관통성 열창

- 증례 보고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의료원 치과학교실(구강악안면외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원주기독병원)

김 종 배 · 유 재 한\*

혈행이 풍부하고 감각신경과 자율신경의 분포밀도가 높은 구강악안면 부위에 사고로 인한 광범위 심부 관통성 열창이 발생되면 계속되는 출혈과 동통으로 인해 쇼크나 실신 등의 전신적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신마취하에 응급으로 열창봉합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환자의 전신상태가 난치성 폐질환(진폐증, 폐쇄성 폐질환)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응급 전신마취가 급기증이 된다면 국소마취 하에 신속 정확한 1차 열창봉합술을 시행하여 출혈과 감염을 방지하고 환자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열창의 범위나 깊이가 과도하면 치과임상에서 흔히 이용되는 1 : 100,000 epinephrine을 함유한 2% lidocaine HCl의 사용량은 최대 허용량(약 11 ampules)을 초과하게 되어 예민한 중추신경계와 심장혈관계에 합병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전신상태가 개선되어 전신마취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후에 상당한 시간 경과 후 2차적인 봉합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반흔 조직으로 인한 추형과 기능장애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열창봉합술은 국소마취제를 다량 사용해 시행하되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작용시간(약 45-75분),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약 2-4시간) 및 열창봉합술 전체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고, 국소마취제의 과용량에 따른 증상들(홍분, 다변, 신경과민, 생징후 및 심전도 변화 등)의 조기발견법과 합병증 발생시 대비책(기도확보, 산소 및 진정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마련하여 시술에 임해야 한다.

이에 저자 등은 구강악안면부에 광범위한 심부 관통성 열창이 있었으나 난치성 폐질환, 저혈량성 쇼크로 응급 전신마취가 불가능했던 2명의 환자에서 봉합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국소마취제를 1시간 당 약 6개 정도씩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봉합을 완료한 결과 양호한 치유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한다. 봉합에 소요된 시간은 약 5시간이었고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총량은 26-28 앰플(ampules)이었다.